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그대가 서있는  
 곳을 깊이 파고 들어가  
 심은 바로 거기엔 있다 사기  
 에게 딱 맞는 무엇이 이곳이 아닌  
 아주 먼 곳에 가 경야 자 가 보지 못한  
 타국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너무 많다. 결국 그 가지 않는다 지금까  
 지 한 번도 사기를 두지 않았던 발아래  
 에 그대가 추구하는 것 그대에게 주어  
 진 많은 비움들이 잠들어 있다 운명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남겨진  
 만이 에 무뎠이 따르는 것만으로는  
 창조성이 없다 오히려  
 운명의 필연

# 09

SEPTEMBER 2015  
vol.09  
MONTHLY MAGAZINE

놓았던 일을  
다려내리마!  
인생의 매순간을  
즐거리라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안노인코  
미국  
예술가의 글  
이상현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  
Are you  
a positive  
person?

빨강  
머리 앤의  
긍정  
멘탈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 앤~’.

루시 M. 몽고메리의 소설 속 주인공 빨강 머리 앤을 기억하는가.

다소 과장되고 우스꽝스럽지만 풍부한 상상력 가득한 앤의 말투,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돋보이는 캐릭터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절망감에 빠져있다가도 어느새 자기의 이름을 ‘Ann’이라고 쓰는 건 너무 끔찍하지만 끝에 ‘e’를 붙인 ‘Anne’은 꽤 기쁨이 있어 보인다고 신나 조잘대는 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면역력  
강하고  
장수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할 확률이 높다.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켄터키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삶에 낙관적인 태도를 오래 유지한 학생일수록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수잔 세제스트론 박사는 “같은 사람이라도 삶의 태도에 따라 면역력이 변하는데 긍정적인 기분이면 그 학생의 면역력은 더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심장병과 긍정적사고와 관련해서 하버드대의 건강 심리학자 로라 쿠브잔스키는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나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수녀 180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과 장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끈다.

연구결과 쾌활한 성격을 가진 수녀들 중에서 85세까지 산 사람은 90%에 달했다.

94세까지 산 사람은 54%였다. 이들이 쓴 일기를 분석한 연구진은 20대 초반에 긍정적인 감정을 피력한 사람이 60년이 지난 후에도 더 건강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현대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험난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삶을 '긍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 '긍정'이라는 숙제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현재에 도전하고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운명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오지만, 이에 묵묵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창조성이 없다. 오히려 운명의 필연성을 긍정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진심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인간 본래의 창조성이 발휘된다."

또 니체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고들여라. 샘은 바로 거기에 있다. 자기에게 딱 맞는 무엇이 이곳이 아닌 아주 먼 곳에, 가령 아직 가보지 못한 타국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발 아래에 그대가 추구하는 것, 그대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

### 그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보아온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늘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다. 늘 웃으며 일을 해 나가고 생활 속의 변화가 즐거운 것이든 슬픈 것이든 당당히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카네기는 '긍정'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긍정적 마인드'다.

한비야는 '이건 사랑이었네'에서 긍정의 힘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난 내가 무척 마음에 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났다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의 소소한 부분이 마음에 든다는 말이다. 우선 나는 한 씨라는 게 마음에 든다. 또 내가 58년 개띠라는 것도 마음에 든다."

한비야의 자기에(愛)적 글처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과연 난 어떤 쪽의 사람인가?

전문가들은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 즉 낙관적인 사고를 좋아 한다"며 "낙관적인 삶의 태도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때 생기며, 이는 어떠한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조언한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보자!  
"그래, 잘하고 있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 '그래서'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하라

소설가 공지영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면 5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떠올린다고 한다. 그런 자세로 6개월 동안 생활하면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되고, 어느 순간 난 '긍정적인 사람'으로 삶을 마주하게 된다고 조언한다.

작가 이지성은 '꿈꾸는 다락방'에서 'R=VD(Realization = Vivid+Dream)'라는 공식을 소개한다. 바로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뤄진다는 것이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열두 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꿈을 생생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은 이뤄졌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잘 될꺼야'라며 생각의 초점을 긍정으로 바꿔보자. 어떤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잘 되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상'이나 '절대로'라는 관점에서 나쁜 일을 본다면 비관적인 성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가끔'이나 '지난번에는'이라는 관점으로 나쁜 일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 니를 바꾸는 생활 속 긍정레시피

01. 좋아하는 일을 하라
02. 즐겁게 행동하라 : 행복한 표정을 짓고, 낙천주의자이며, 외향적인 사람인 척하라.
03.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신이다 : 자책, 자신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말라.
04. 자신에게 작은 보상이나 선물을 함으로써 매일 현재를 살아라.
05. 친구와 가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06. 현재를 즐겨라.
07.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08. 시간을 잘 관리하라 : 상위목표와 그 목표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작은 목표들로 나눠라.
09.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을 준비하라 : 신앙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10. 음악을 들어라.
11.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라.
12.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출처 : 행복 / 리즈 호기드 지음 / 예담

#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9월호 vol.09  
MONTHLY MAGAZINE, SEPTEMBER 2015



08

## 행복을 주는 사람 | 최장숙 SOS생명의전화 상담사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주택 사이에 소담하게 자리잡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층 상담실에서 만난 최장숙 상담사. 마주한 순간 느껴지는 환한 얼굴빛, 미소, 말투에서 '행복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전화 한 통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 살려냈다는 자부심으로 제 2의 행복한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 최 상담사와 삶을 긍정하는 법을 이야기 한다.



18

## 지식프라자 | 미리 알아보는 2016년 적용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6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저금리 시대, 노령화 시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조로 삼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변화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본다.



26

## Anti Aging |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행복은 당신의 베갯맡에 있다. 편안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신체나이 10년은 거뜰히 거슬러올라올 수 있다. 폭신한 침대에 피곤한 몸을 맡겼을 때의 해랑감, 잠에 빠져들 때의 그 노곤함과 편안함, 그리고 숙면을 취한 다음날 아침의 상쾌함을 위한 퀘(快)면의 모든 것.



36

## 경제이슈 | 중국 위안화 절하의 배경과 향후 전망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절하함에 따라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은 세 번째 경기부양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 온 중국 위안화 절하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OPENING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 INTERVIEW



08 **행복을 주는 사람**  
교육자에서 상담사로 행복의 문을 열다

### INFO GRAPHY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행복미래설계



14 **H씨의 행복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주택연금 활용으로 넉넉한 노후 설계

18 **지식 플라자-세무**  
미리 알아보는 2016년 적용 세법 개정안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추가 세제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IRP

24 **Do! Dream**  
시간 관리 아닌 시간에 대한 관점이 문제

26 **Anti aging**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28 **Alone, together**  
견기의 즐거움, 위커블시티

###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안과 함의

###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중국 위안화 절하의 배경과 향후 전망

40 **부동산이슈**  
정부 가계부채 대책, 주택시장에 찬물 끼었나

### GLOBAL



44 **지구인 이야기**  
실리콘밸리의 '노화 방지 연구'

### FUTURE



46 **은퇴, 버킷리스트**  
도전! 아프리카 여행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9월호 vol.09 (통권 9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 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9월 8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상환 연구위원,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김홍균 수석전문역,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유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 최장숙 SOS생명의전화 상담사

## 교육자에서 상담사로 행복의 문을 열다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주택 사이에 소담하게 자리잡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층 상담실에서 만난 최장숙 상담사. 마주한 순간 느껴지는 환한 얼굴빛, 미소, 말투에서 '행복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전화 한 통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 살려냈다는 자부심으로 제 2의 행복한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 최 상담사와 삶을 긍정하는 법에 대해 나눴다.

### 교장은퇴 후 상담사로

최 상담사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다. 오랜 기간 아이들과 소통하며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는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면서 상담의 길로 접어들었다. 평소 배움을 즐기던 최 상담사는 우연히 퇴직 전 직원의 권유로 '한국생명의전화'의 전화 상담사 양육 과정을 듣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년 동안의 상담사 과정을 들으면서 그는 '준비된 상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나갔다. 사실 SOS생명의전화 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만큼 한치의 서투름도 없어야 하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상담사 양육 과정 수업이 있던 첫 날, 그날의 울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당신에게 전화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라는 교수의 질문으로 시작된 강의를 들으며 그는 누군가의 삶에 한 줄기 빛을 선물하는 상담사가 가진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 어떤 때는 자부심으로 가슴 벅차오르고, 어떤 때는 회의감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만 상담사로 봉사한 지 3년의 시간은 그의 70여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가 없는 봉사활동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한다.

최 상담사는 상담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들의 애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행복이 뭐 별 거 있겠어요. 이들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저에겐 행복이에요."

또 삶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이들과 때론 웃고 때론 울며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그에겐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무르익은 내면의 사명감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힘든 상담사로서의 일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비결이기도 하다.

## 봉사에서 얻는 삶의 의미

은퇴 후 지친 몸,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진정한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단다. 실제로 사심 없는 친절이 행복과 삶의 질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소외받고 음지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하는 일은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상담사 활동을 통해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은 기분입니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덤으로 자부심과 보람도 느낄 수 있어 생명의 전화 상담사로서의 삶은 참 감사한 일이라며 최상담사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는다.

##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다

만약 죽기 직전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최 상담사의 상담법이 궁금했다. 그녀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닉을 언급한다. 영화에서 닉은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아버지를 꺾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총을 겨누는 순간 누군가가 옆에서 “너 얼마나 힘드니?”라는 한마디만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이 스스로에게 겨눴던 총부리를 내리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후,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며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환시키면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전화 한 통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마음만 읽어주면 해답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딱 막혀서 앞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겐 양가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로는 죽고 싶다고 하지만 실은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 감정이지요.”

너무 깊은 절망감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끄집어내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최 상담사의 임무이다.

하지만 상담이 늘 성공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회의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스스로를 다잡는 과정을 반복한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 힘들어하는 거예요.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경청하다 보면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서서히 격한 감정이 누그러지고 주변을 돌아 볼 여유가 생깁니다.”

수화기 너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 한국생명의전화는 1963년 3월, 알렌 워커(Alan Walker) 목사가 전화상담을 통해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상담 이외에도 생명사랑과 자살예방 캠페인 ‘해질녘서 동 틀 때까지 생명사랑 밤길걷기’ 등의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해요. 매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죠. 국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9월 18일의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 캠페인은 국민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요.”



## 감사와 긍정, 웰다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담사 일을 거뜬히 소화해내고 있는 최 상담사.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살면서 겪게 되는 실패, 고통, 아픔도 우리 삶의 일부인데요. 이것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요.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어둠기만 했던 오늘이라는 삶에 한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고 얘기한다.

오늘의 그녀가 있기까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연속이다.

“내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상담사로서의 인생 2막을 시작한 것, 힘들 때마다 응원하고 지지해 준 가족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감사이자 행복”이라고 말한다.

인터뷰 내내 감사라는 단어가 멈추지 않았던 최 상담사. 긍정과 감사에 초점이 맞춰진 그녀의 삶의 방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삶을 긍정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삶을 감사하기에 주어진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운동과 배움을 곁들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한 끝의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기대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위해 지금 현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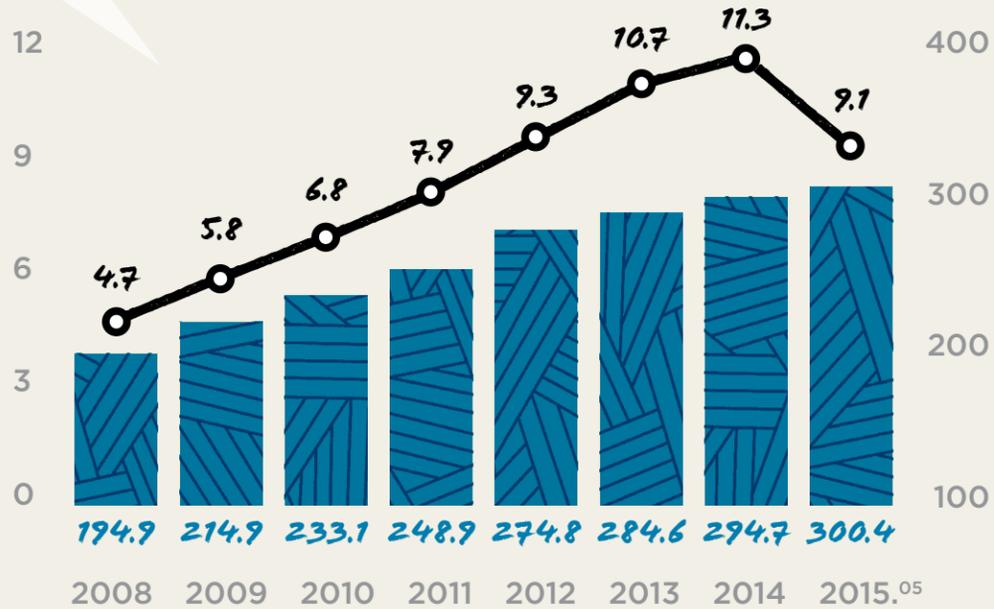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실수급자 300만명 시대진입



## 01. 노령연금 실수급자 추이

단위 : 조원(좌), 만명(우)  
자료 :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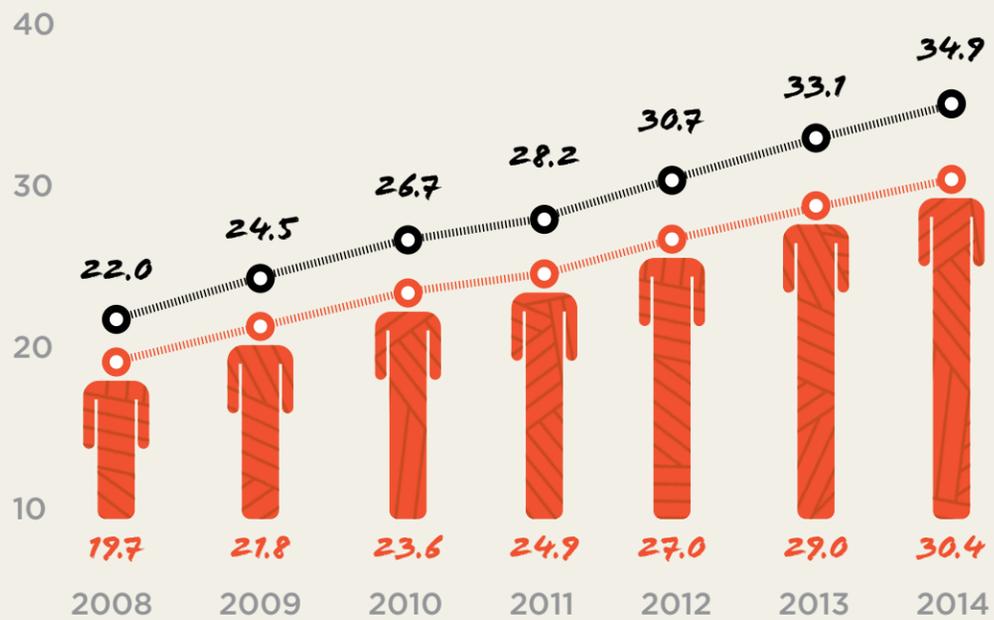
○ 금액(좌)  
■ 수급자(우)



## 02. 65세 이상 고령자 노령연금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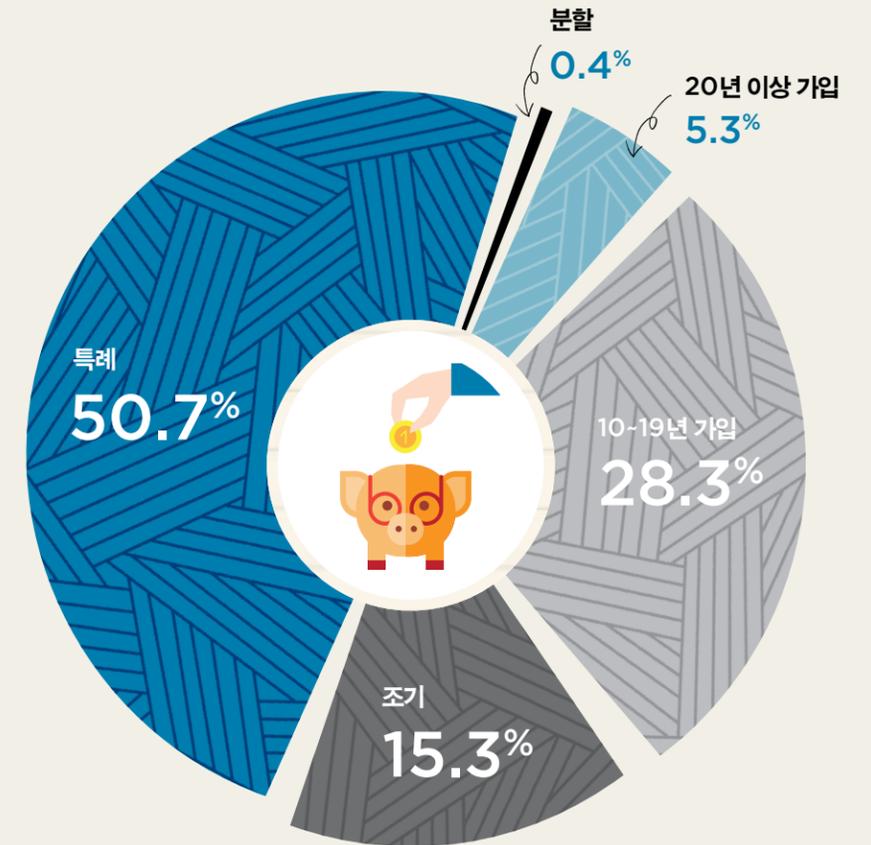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 :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 비중

○ 국민연금 수급  
● 노령연금 수급



## 03.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자 구성

단위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 : 2015년 5월 수급자 기준



## 04. 노령연금 연령별 수급자 비중

단위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 : 2015년 5월 수급자 기준



#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주택연금 활용으로 넉넉한 노후설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은퇴는 60세에 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하는 상황이다.

H씨의 경우 현재 소득은 높은 편이나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

H씨는 어떻게 노후 행복설계를

해야 할까?



## 소득은 높은 편이나

###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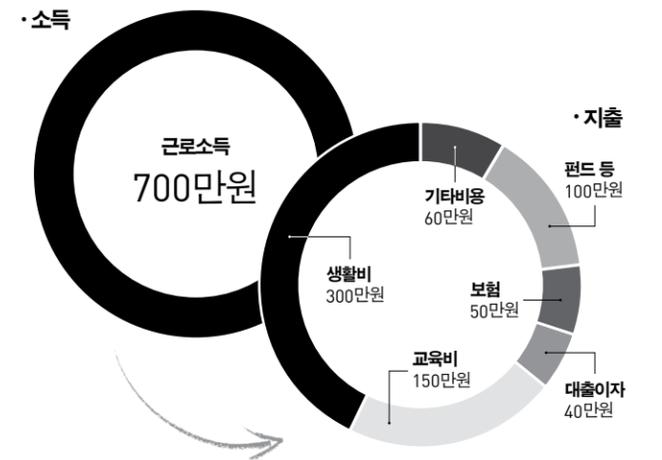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만 52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대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약 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5,000만원, 펀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로는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과 토지담보대출 5,000만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300만원, 교육비 150만원, 대출이자 40만원, 보험 50만원, 펀드 100만원, 기타비용 60만원이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아 현재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편이다. 다만 향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1인당 4,000만원 예상)과 미래 자녀들의 결혼비용(1인당 1.5억원 예상)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6억 원
	토지	2억 원
	예/적금	5,000만 원
	펀드	1억 원
· 부채	담보대출(아파트)	1억 원
	담보대출(토지)	5,000만 원
· 순자산		8억 원



## 6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하는 상황

H씨는 은퇴시기를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69세까지 10년 간 수령할 예정이며, 매월 각각 약 60만원, 5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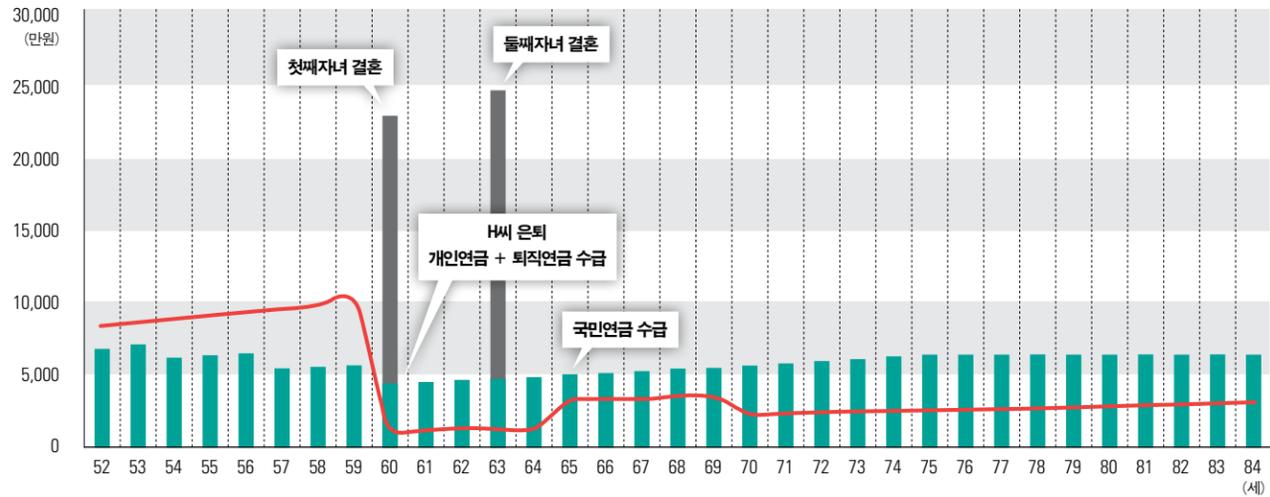
H씨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sup>1)</sup>을 살펴보면, 은퇴 직전인 59세까지는 지속적으로 여유금이 발생하지만, 은퇴를 하는 60세부터 84세까지 지속적으로 자금부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층 연금(국민, 퇴직, 개인)을 모두 수령하는 시기인 65~69세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한편 H씨의 우려와 달리 자녀 대학 등록금이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에도 교육비로 자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자산부채 현황에서 불필요한 이자 납입 방지를 위해 신용대출을 예/적금 또는 펀드로 상환하는 것을 가정.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녀 1인당 매월 75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 추가로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녀들이 차례로 대학을 졸업할 때 마다 지출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여유자금 발생 규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은퇴 시기와 두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이 맞물리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자금부족 구간에 대규모의 일시적인 지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기존 보유 금융자산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연령별 수입 - 지출 현금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주택연금 활용과 함께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이 요구

수입-지출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조정된 금융자산에 대한 4% 중반의 목표수익률 설정, 금융자산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수익률을 추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 화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 하여 금융자산으로 변경한다. 또한 높은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각대금으로 담보대출 잔액 1억5,000만원을 상환한다. 상환 후 남은 5,000만원과 기존 예/적금 5,000만원, 펀드 1억 원을 운용자산으로 편입한다.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확보된 금융자산에 대해 목표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 H씨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금융자산 2억원과 향후 발생할 여유자금이다. 이 금융자산을 4.6%의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자녀 2명의 결혼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월 300만원의 예상 노후생활비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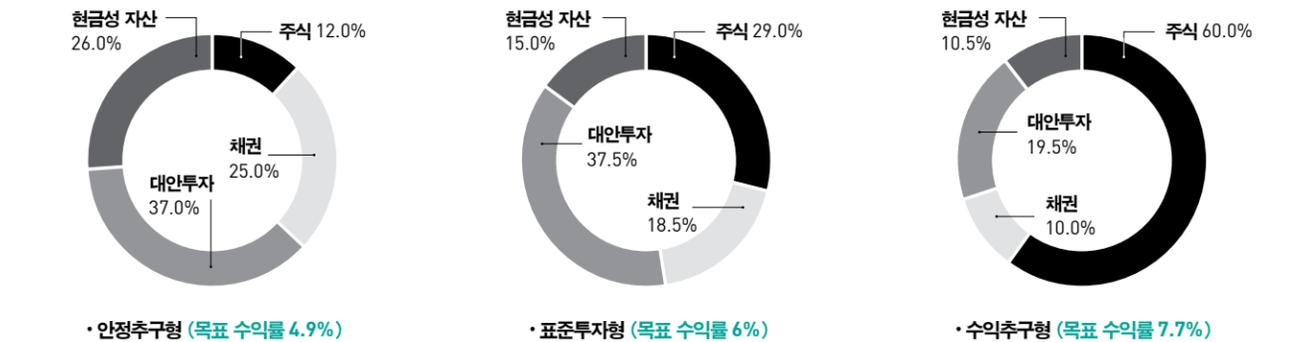
현재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4.6%는 안정추구형(4.9%)에 근접한 수익률이다. 안정추구형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자 유형이다. H씨의 경우 수익을 추구하되 공격적이진 않은 성향이나 은퇴 시점을 고려해볼 때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추구형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확보된 금융자산에 대한 안정추구형 운용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2) 부동산 자산의 경우 미래 가격의 등락폭 예상이 쉽지 않아 본지에서는 불변으로 가정

장점이 있다. H씨의 경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60세부터 매월 137만원씩 수령이 가능하다. 위의 시나리오는 H씨가 자녀에 대한 상속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만약 H씨가 자녀들에게 일부 상속을 원할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목표수익률 상향과 주택연금 수령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목표수익률을 표준투자형(6.0%)에 근접한 5.9%로 설정해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6억원의 아파트 중 4억원 규모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해 60세부터 매월 91만원씩 수령하게 되면 위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지 않은 2억원에 대해서 추후 자녀들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5.07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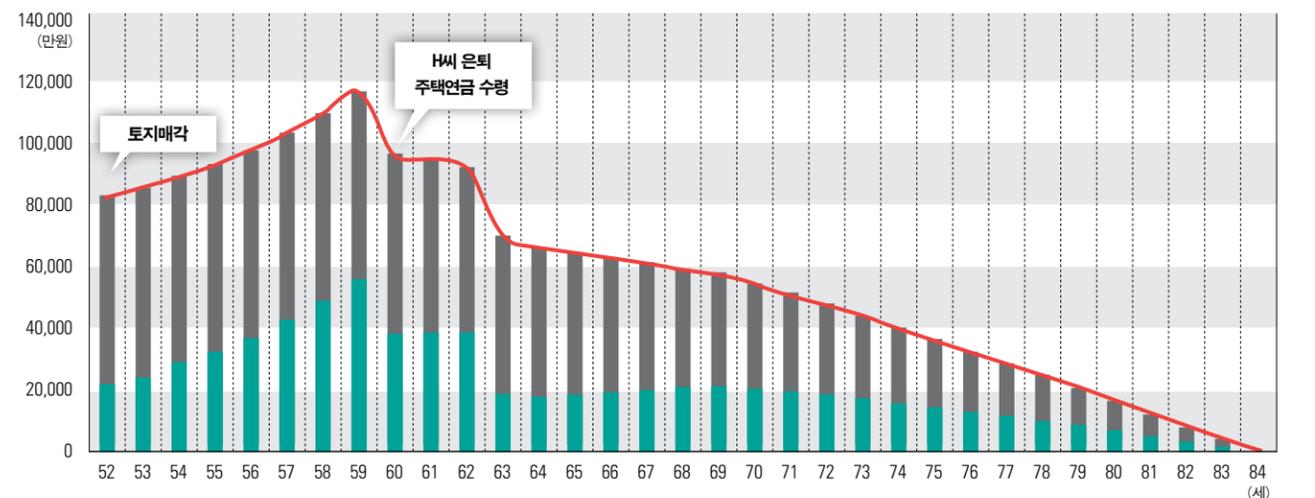
균형 잡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H씨는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많은 실물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금융자산과는 달리 유동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 결혼비용과 같은 일시적인 지출 및 노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결코 길다고 볼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자산운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H씨의 경우 처음에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안정적인 금융자산의 운용 및 보유 아파트에 대한 전액 주택연금 활용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H씨의 사례를 볼 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독자들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순자산 흐름



저소득층은 생활 안정, 고소득층은 과세 사각지대 양성화

# 미리 알아보는 2016년 적용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6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저금리 시대,  
노령화 시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조로 삼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변화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본다.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저금리 시대 및 노령화시대에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했고, 일정비율 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 시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과세형평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었던 가족 명의의 자동차를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의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에도 과세체계를 정비했는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고, 그동안 혜택을 주었던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도 세율을 올려서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세율을 22%로 단일화했다. 또 비상업용토지의 양도 시 내년부터는 일반양도소득세율(6~38%)에 10%p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양극화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로 1,525억원 세금감면 효과를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없애면서 과세의 사각지대를 양성화해 1조529억원 세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세제혜택 볼 수 있어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한 다음 그 결과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대상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제도와는 달리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5년 동안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세제지원은 5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며, 만약 2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9.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 가입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더불어 해외주식 투자전문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대상이 되는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이다. 한 사람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까지이고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이 상품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주요내용

요건	개정안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 (1인당 1계좌)</li> <li>• 신규 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li> <li>•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함</li> </ul>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li> <li>• 소득 200만원 초과 분 9.9% 분리과세</li> </ul>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 한도)</li> <li>•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납입한도 통합 관리</li> </ul>
의무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li> <li>• 청년(15-29세) 또는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li> </ul>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2018.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li> </ul>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2016.1.1. 이후 감면 받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요건이  
강화돼**

두 번째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강화된 비용 처리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족명의 수입차량의 리스료를 사업자 및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가의 수입차는 대부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실제로는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왕왕 접할 수 있었다.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관련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를 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여론을 반영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승용차관련 비용은 모두 대상이 된다(단, 경차, 승합차, 택시는 제외됨).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차량을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일정비율만큼은 비용처리를 해 주고, 실제로 업무용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운행일지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실제사용 비율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일정 규격 이상이고 탈부착할 수 없는 기업 및 사업자의 로고를 부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을 100% 인정해 준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법인 승용차관련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해주지 않고, 그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한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용한 차량이라고 하면 대표자에게 그 자동차 관련 비용이 소득 처분되므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도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입증만 하면 일정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차량관련 또 하나의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차량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이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매매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그와 관련된 이익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억원 가량 차량을 구입하고 3년 사용 후 차량을 5,000만원에 매매했다고 가정하면(차량의 감가상각률은 0.451로 가정함) 차량의 감가상각 후 잔액이 1,700만원이므로 3,300만원(5,000만원-1,700만원)을 해당사업자의 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요건**

요건	개정안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비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하고 아래의 ㉔ 또는 ㉕를 만족하는 경우 **일정요건 예시 (i) 임직원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2016년도 중 보험 갱신 시 가입 필요) (ii)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㉔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 만큼 인정함 ㉕ 기업·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 미충족 시	① 법인사업자 :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이 비용인정 안 됨(귀속자는 소득세 과세) ② 개인사업자 : 비용인정 안됨
적용 대상	① 모든 법인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기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매출액 5억원 이상
적용 시기	①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② 복식부기의무자(개인)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자본거래 과세의지  
돋보여**

마지막으로 자본거래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은 상장주식 거래 시 매매이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때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보다 강화해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 2% 이상(직전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해당지분율에 도달한 경우 포함)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50% 낮추어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게 되어 주식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22%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주주 지분산정 시 특수관계자 보유지분도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을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시 11%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했으나 이 경우에도 대주주라면 22%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재산형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를 주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 밖에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개정추이를 지켜 본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추가 세제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IRP

개인형 IRP가 올해부터 추가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주요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계속해 적립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기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가입한 DB나 DC형과는 별도로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개인형 IRP가입은 기존 확정급여형(DB)나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에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을 이전해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자가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 추가로 자기부담 형태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퇴직급여 일시금의 경우 한도가 없지만 추가 자기부담 형태의 납입은 1,20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형태로 추가 납입이 이뤄진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합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여기에 IRP에 한해 올해부터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납입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시점까지 과세가 지연되는 이점과 더불어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도 3~5%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적립금 운용 시 위험자산의 편입한도도 4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의 탄력성이 확대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한꺼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개인형 IRP를 올해가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요즘과 같은 저성장 및 저금리 구조 하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만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담금 납입	•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임의납입 및 추가납입이 가능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 이내 납입 가능
세제혜택	•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400만원까지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수급요건	• 연금수급은 55세 이상, 수급기간은 5년 이상 •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가능
제도 간 이전	• 직장 이동시 및 퇴직 시 IRP로 이동
금융기관 개설	• 퇴직연금 취급금융사에서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의료에서부터 생활업종 할인까지 생활행복의 노하우가 되는

### ‘행복노하우 카드’



- 의료업종(병원, 약국 등) 5~10% 할인
- 생활업종(대형마트, 휴대폰요금, 택시) 5~10% 할인
- SK주유소 5천원 할인쿠폰 (5만원 이상 4회 이상이용시)
- 장기고객 우대서비스 (신세계상품권 제공)

\* 의료업종/생활업종 할인은 전월 사용금액(30/60만원 이상)에 따라 차등 제공됩니다.

• 보육료 결제기능 추가된 카드의 보육료 선부채납금은 기존 카드의 서비스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 전월 사용금액 산정 시 제외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이미 납입한 연회비를 월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단,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소요된 비용과 기존 부가서비스 비용을 공제하여 차액입금 하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는 최소 1년 경과 후에 진행)  
 - 카드이동시 제공되는 후안비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로부터 1년 경과 이후 1년 이상 휴소 -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업종의 일부 개인 제휴조건 변경, 독신 신청비, 금융회사의 같은 카드업사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카드대금상환시 우편서신 이메일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1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직성 유지가 어려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5개월 전부터 해당 개별고지해 드립니다. (가맹고지 방법: 카드대금상환시 우편서신,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하나)  
 \*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해실 경우, 회원님의 보유카드 정보가 어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간 공유되어 신용등급이나 이월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신청 시 신용심사 및 신용 의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800-1111)로 문의 바랍니다.  
 \* 연회비 : 국내전용 9천원 (기본 6천원 + 제휴 3천원) / 국제외국용 1만원(기본 7천원 + 제휴 3천원)

고객센터 1800-1111 카드대출 (현금서비스/카드론) 1800-1000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연회이자율(24.0~29.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시간 관리 아닌 시간에 대한 관점이 문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누구나 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시간을 푹푹 밟아가며 알차게 쓰지만 어떤 이는 시간이 언제 흐르는지도 모른 채 지나치기도 한다. “시간이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치고 시간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황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마도 세계적인 갑부로 꼽히는 만수르가 아닐까. 만수르의 재산을 이자 수입으로 계산하면 1초당 한화로 13만원을 번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하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수르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 사람이다. 돈이라는 물질로 시간을 환산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무의미할 것이다. 만약 시간을 ‘가치’로 따진다면 어떠할까.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의 간절한 내일이었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가진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한다. 그들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들의 성공이 시간 관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부 맞는 말이지만 하나 분초로 쪼개어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이는 시간 관리가 과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는 의문이다.

꼼꼼하게 짜여진 시간 계획표 안에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시간 관리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시간 관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우리는 시간을 관리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보다 나은 시간 관리를 위해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애당초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격한 의미로 ‘시간 관리’란 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은행’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은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려 자살을 선택하기 직전 시간은행의 ‘M’이라는 인물을 만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

‘시간은행’에서 말하는 ‘시간관리 10계명’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시간 관리가 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시간 관리가 반드시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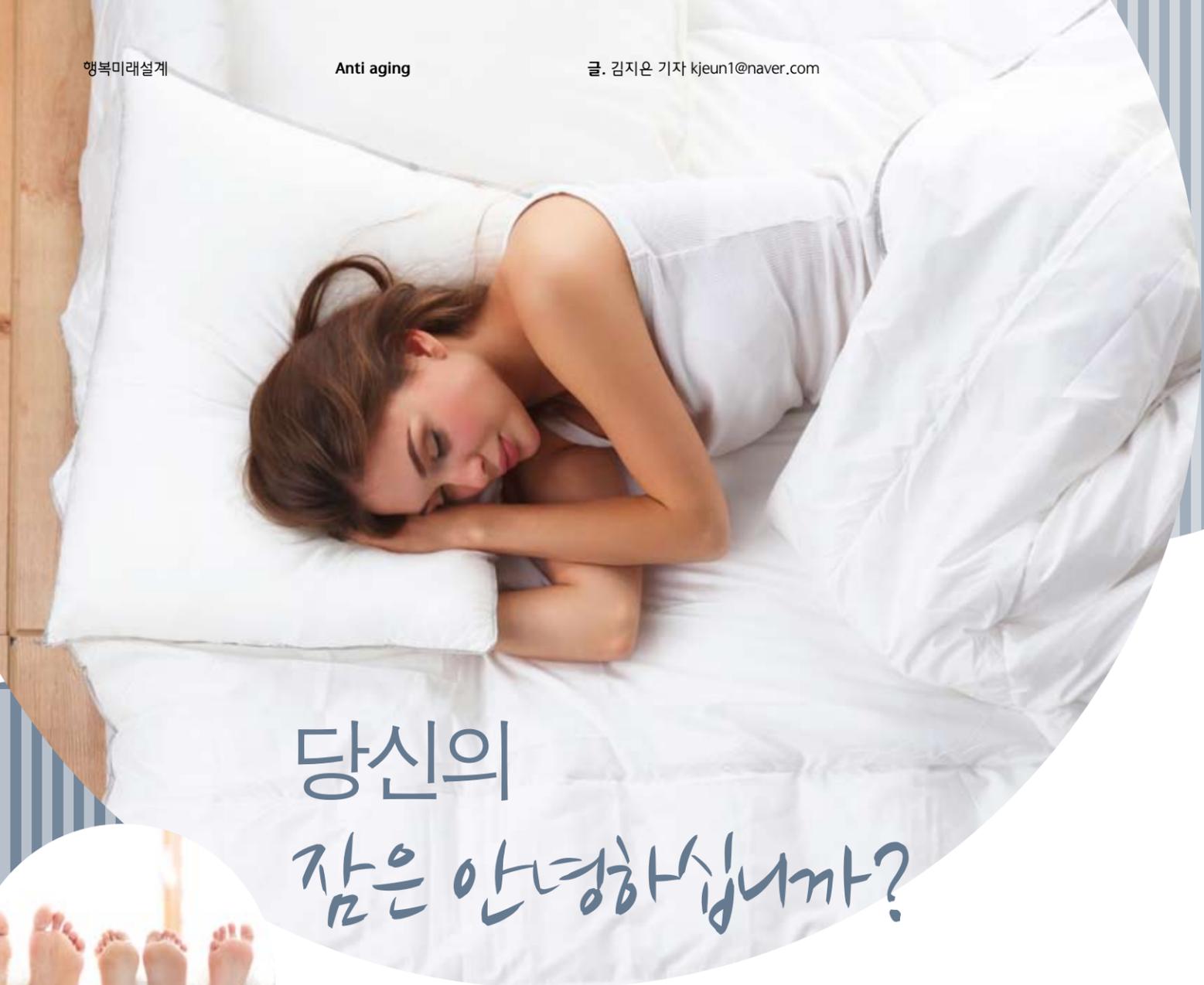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만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체계적인 일 처리라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더 바쁘게 만들고 더욱 더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 뿐이다.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현대인들은 ‘타임푸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며 과거보다 풍족한 물질을 누리고 있지만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시간을 관리가 아닌 관점으로 바라보자.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전략적인 시간 관리가 아닌 시간에 대한 지혜로운 관점만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시간은행’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 10계명>**
- 01 -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 직장, 관계,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을 파악하고 알기하라.
  - 02 -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 03 - 어딘가에 제출해야 할 것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유 있게 끝내라.
  - 04 - 저녁시간에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멀리하고 잠깐이라도 책을 펼쳐라.
  - 05 - 책상 위와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라.
  - 06 - 과거의 실수를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 07 -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다면 미리 전화하라.
  - 08 -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마라.
  - 09 -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10 - 예비시간 5분을 항상 포함시켜라.



#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행복은 당신의 베갯맡에 있다. 편안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신체나이 10년은 거뜰히 거슬러 오를 수 있다. 폭신한 침대에 피곤한 몸을 맡겼을 때의 해방감, 잠에 빠져들 때의 그 노곤함과 편안함, 그리고 숙면을 취한 다음날 아침의 상쾌함을 위한 쾌(快)면의 모든 것.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수면패턴부터 체크해보자.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운이 없고 폭 잔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수면 시간, 수면의 질을 확인해봐야 한다. 보통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런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심각한 질병에 노출 될 위험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로 전립선암, 폐양성 대장염, 알츠하이머병, 자살 등이 수면 부족과 관련이 깊다. 그렇다고 시간에 얽매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다. 하루 8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어 사람들은 '어제는 5시간밖에 못 잤다' 또는 '오늘은 9시간이나 자버렸다'고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수면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게 여길 것은 수면시간이 아니라 수면리듬"이라고 강조한다.

## 당신이 잠든 사이

잠은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잠에 빠져들며 가벼운 잠을 자는 처음 10분을 1단계, 더 깊이 잠에 빠지는 단계를 2단계, 20분 간 지속된다. 3단계와 4단계는 숙면을 취하는 단계다. 숙면은 신체와 뇌가 낮 시간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델타수면'이라고도 한다.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밤 시간 동안 사람은 잠의 여러 단계를 4~5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 또 골든아워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자야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 여러 호르몬을 분비한다. 뇌 속의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되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뇌 속 호르몬으로는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 멜라토닌, 세로토닌,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티졸 등이 있다. 성장 호르몬은 안티에이징과 관련이 깊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멜라토닌은 수면효과, 노화방지, 항암작용, 성욕구 억제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 꿀맛 같은 낮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피곤할 때 잠깐 눈을 붙이면 훨씬 컨디션이 좋아진다. 바로 낮잠의 효과다. 낮잠을 잘 때는 먼저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장소를 고른다.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을 고른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한 후 10~15분간 잠을 잔다. 잠자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시간을 초과하면 숙면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깨어나기 힘들고 깨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다.

## 올바른 숙면법, 화내지 않기

즐겁고 건강한 잠의 세계로 인도할 올바른 숙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자. 잠을 잘 때는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모로 눕되 두 다리를 굽혀서 최대한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자세로 자면 취침 중에도 소화가 잘 되고, 심장에 압박을 주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 된다. 둘째, 잠자기 전에 절대로 화내지 말자. 수면 상태가 되는 과정은 체온과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근심이 있으면 체온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진다. 화는 잠을 못 들게 하는 적이 되어 수면을 망가뜨리고 젊게 사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는 되도록 언쟁을 피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셋째, 잠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피하자. 잠자리에 누워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른 일을 하면 '잠자리=수면'의 등식이 깨진다. 잠자리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라는 규칙을 몸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잠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자.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자율신경계는 쉬지 않고 활동한다. 한마디로 피곤을 풀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째, 머리는 항상 시원하게 입은 다물고 잔다. 머리가 시원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두통을 방지한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은 대부분 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이불은 꼭 덮자. 잠자리에서는 자신의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체온 보호를 위해 이불을 꼭 덮어야 한다. 잠 잘 때 베개는 6~9cm가 적당하다.

### TIP BOX

#### 안티에이징 수면 습관 TIP.6

- TIP 1.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자.
- TIP 2. 잠자기 전에 절대로 화내지 말자.
- TIP 3. 잠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피하자.
- TIP 4. 잠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자.
- TIP 5. 머리는 항상 시원하게, 입은 다물고 잔다.
- TIP 6. 이불은 꼭 덮자.

참고도서 : 잠의 즐거움(시토 도미오, 국일미디어)

# 걷기의 즐거움, 워커블시티

주말, 한가로이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느릿느릿 채워 보는 건 어떨까. 때론 평평한 포장도로, 때론 구불구불 골목길, 때론 나무향 가득한 숲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닫혀 있던 오감이 활짝 열리게 된다.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읽는 방법, 걷기.

발끝으로 땅을 천천히 느끼며 내 발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걷기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한 감정을 더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내 생각도 조금씩 흐르기 시작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걷기에 대해 이렇게 예찬한다.

“진실로 위대한 생각들은 걷는 동안 잉태됐다. 가능한 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나오지 않은 생각은 절대 믿지 마라. 모든 편견은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자신의 창작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시간의 연습보다 1시간의 산책이라고 말했다. 걷기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색이 그에게 음악적 영감이 되어 돌아 온 것이다.

‘걷기 예찬’에서 데이비드 르 브르통은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라며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고 얘기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길을 걷는 행위는 저항 내지는 모험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걷기에 꼭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걷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조금 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걷다보면 막혀 있던 생각들은 가볍게 흩어지며 한결 훌기분해진다. 낯선 여행지를 가듯 길을 걸어보자. 우연히 만나게 될 자연, 사람 그 외 모든 것들이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존재가 되고 길 곳곳엔 새로움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가득해진다.

걷기는 사색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전문가들은 “걷기는 인간의 수명을 1분당 1.3~2분씩 증가시킨다”며 “평소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고 조언한다. 다이어트에도 그만인 것이 걷기다. 1.6km를 15분에 걸으면 같은 거리를 8.3분에 뛰 것과 같은 양의 칼로리가 소비된다. 하루에 3.2km씩 일주일에 3일을 걸으면 3주마다 약 373g씩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걸으면  
수명이 1분당  
1.3~2분씩  
증가

## 워커블시티, 서울 (Walkable City Seoul)

### 01. 메타세쿼이아 숲, 안산 자락길



안산 자락길은 서대문구청에서 나무 데크와 친환경 마사토로 인공 조성한 산책로. 높이가 300m도 안되지만 도심에서 울창한 산 속을 거닐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다. 7km에 달하는 순환길을 따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약수터, 쉼터, 화장실이 순환길 곳곳에 갖춰져 있어 오랫동안 걸어도 전혀 부담이 없다. 자락길을 완주하면 2시간30분 ~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가볍게 걷기를 원한다면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늘 위로 쪽 뺨은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은 자락길의 인기 구간. 걸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메타세쿼이아의 웅장함은 가슴 뺨 뚫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안산 자락길은 순환길인 덕분에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도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팁 한 가지. 서대문구청 뒤편으로 진입하면 독립문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빨리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날 수 있다.

#### •가는 법•

1.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향으로 진입
2. 서대문구청 서대문보건소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서대문구청 뒤편으로 진입

### 02. 반얀트리 호텔 내 성곽길

남산에 위치한 숨겨진 걷기 코스가 있다. 반얀트리 호텔을 시작으로 성곽마루 정자에 이르는 곳이 바로 그곳. 이 구간은 0.5km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주변 경치를 살피며 걷기에 좋다. 나무 데크길이 주는 편안함, 팔각정 정상 전망은 걷기를 더욱 부추긴다. 짧은 구간이라 쉬엄쉬엄 산책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적격이다.

제대로 걷고 싶다면 4.2km 구간인 장충체육관에서 국립극장을 지나 N서울타워와 팔각정, 백범광장까지의 코스도 추천할 만하다. 단, 반얀트리 호텔 코스는 사유지로 일몰 시간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가는 법•

1. 국립극장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까지 진입
2. 남산 성곽길 3코스를 이용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까지 진입

### 03. 서리골 서리풀공원길



서리골 서리풀공원길은 이국적 정취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서리풀이 무성해 붙여진 옛 지명인 서리골공원은 가볍게 오르기 좋은 길이다. 고속터미널역을 출발해 서래공원, 서리골공원, 누에다리, 누에조각상, 몽마르뜨공원, 서리풀공원, 방배역까지의 코스다. 코스를 다 돌면 3.9km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몽마르뜨공원과 서리풀공원에는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곳곳에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에도 좋다. 코스를 돌고 내려와 서래마을의 이국적인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쉼을 가지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 •가는 법•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바로 맞은편으로 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안과 함의

국민들이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정책당국이 도입 안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ISA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국내 활성화 방향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최근 정책당국은 국민들이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가계의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후를 위한 재산형성도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에 대응해 노후대비 자금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그 영향과 향후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 2,000만원 가입한도로 5년간 가입할 경우 차등과세 혜택 부여

이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안은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까지 변화의 여지가 있지만 크게 세제혜택 부여 등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및 운용, 의무가입기간 및 중도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가입대상자는 가입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1인당 1계좌로 하고 있다. 특히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원천징수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상품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한해서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를 가입한 자가 연간 납입액으로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1,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유지될 경우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의무가입 기간 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9%의 분리과세로 종결하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자산의 관리는 가입자가 신탁업자에게 상품의 편입 및 교체 운용지시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가입은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에는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ETF를 포함한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자유롭게 편입되고, 중도 교체가 가능하지만 주식 등의 직접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편입

된 상품의 운용은 가입자가 계좌에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과 탐색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 구성과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영 및 중도인출의 측면에서 계좌는 우선 향후 3년간 운영을 한 후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 및 이자의 중도인출 없이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정소득 이하(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이거나 15~29세 이하일 경우 결혼 등 라이프사이클 상에서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자의 사망,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일 경우 등 예외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해외는 가입자력에 연령만 제한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 및 납입은 자유롭게 허용**

한편 해외의 경우 영국과 캐나다는 세제혜택, 가입대상조건 등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ISA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먼저 가입자력에 대해 영국 등은 일정수준 이상의 연령(영국은 16세 또는 18세 이상, 캐나다는 18세 이상)과 국내 거주만을 요구할 뿐 그 외 소득수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두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입 한도는 2015년 기준 영국은 15,240파운드, 캐나다는 10,000 캐나다 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해 한도가 조정되는 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해당년도에 납입한도 중 미사용 한도가 발생할 경우 이월이 가능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은 모두 이자, 배당, 자본이득, 채권 이자 등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부여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ISA 계좌 자산이 상속자에게 비과세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도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ISA의 계좌개설은 은행, 증권, 보험, 신탁, 주택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ISA 계좌 가입자는 예금, 펀드, 보험계약 등을 계좌에 편입할 수 있고, 직접 주식 및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계좌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계좌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해외는 제도의 운영기간을 영구화해 가계의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ISA의 중도인출에 대해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페널티 없이 중도인출 및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의 ISA 제도 비교

구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안)	영국 ISA	캐나다 TFSA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 거주자</li> <li>•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근로·사업소득자</li> <li>•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세 또는 18세 이상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거주자</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 배당 등 손익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li> <li>•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 배당, 자본이득, 채권이자 등 비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 배당, 자본이득, 채권이자 등 비과세</li> </ul>
연간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240 파운드(201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 캐나다 달러(2015년)</li> </ul>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펀드, ELS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MMF, 펀드, 보험계약, 주식, 채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MMF, 펀드, 보험계약, 주식, 채권 등</li> </ul>
취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신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신탁, 주택조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사, 보험, 신탁 등</li> </ul>
중도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 불가 (5년 또는 3년)</li> <li>• 천재지변 등 예외사항 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li> </ul>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위, HM Revenue&Customs, Canada Revenue Agency

**IS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적극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

이번에 정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은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과는 달리 포트폴리오 투자지원, 가입대상자의 확대추진 등의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시안으로 제시된 것은 정부의 단기적인 세수감소 우려, 기존 세제혜택 상품구조의 원용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설계돼 해외에서 ISA가 활성화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활성화될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향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는 보완 및 입법화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보다 더 부여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잘 반영되어 금융 효익과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자격에 현재 정책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소득요건 등을 포함시키지 말고,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가 18세에서 19세인 점을 감안해 18세 이상의 거주자로만 자격을 단순화해 가입대상 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는 이자, 배당 등 관련자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의 경우 주식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이 해외와는 달리 부가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사의 확대와 더불어 일정한도 내에서 자사상품의 편입 허용 등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금융사에 한해서만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금융소비자들의 계좌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해외처럼 가능한 한 모든 금융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품의 편입도 현재 자사상품 편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일정한도 내에서 자사상품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용지시의 경우도 가입자들의 지식 및 정보의 불균형을 감안해 독립투자자문업 제도 등의 병행 조기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납입 및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자산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축적된 자산을 필요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무기간 동안 특별한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금융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각종 연금의 유지율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노후 소득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금융소비자들이 유동성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경우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종 연금 등의 해약을 통해 대응하고 있어 정작 연금이 필요한 노후에는 사용할 연금이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의 도입 시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상품의 제시 등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향후 ISA 시장에서 금융사들의 경쟁력은 누가 고객 세분화를 통해 각 세분화 그룹에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상품을 제시 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하나금융투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금융투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4년  
400만원



2015년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세제혜택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 가입 후 기본 평가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한도 / 150만원까지, DC기반 추가납입금 한도 기준 / 500만원까지 한도 적용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금방식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예금보험)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3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 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aw.com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투자**

# 중국 위안화 절하의 배경과 향후 전망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절하함에 따라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은  
세 번째 경기부양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 온 중국 위안화 절하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 높아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가중

중국이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4.66% 절하했다. 중국 정책당국은 그동안 중국 위안화 환율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위안화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는 의미), 이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책당국은 13일 "더 이상의 평가절하는 없다"고 밝혔으나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언론은 이번 중국의 위안화 절하조치를 '환율전쟁'의 본격화로 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한데 이어 유로존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아베노믹스'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을 통해서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환율전쟁에 가세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국과 경제규모 세계 1, 2위를 다투는 중국마저 위안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위안화 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이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했으며, 변동환율 제도를 시행 중인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치도 동반 추락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위안화 절하와 중국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타격이 컸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 1,800선대로 추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3년 10개월 만에 최고수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은  
세 번째 경기부양 정책

중국이 전격적으로 환율을 절하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책당국은 중국경제를 기존의 수출과 투자위주의 양적성장에서 내수와 소비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의 경기 건인력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생산, 투자, 소비의 증가세가 함께 둔화 중이며, 수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반기 GDP 성장률이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 호조로 7%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증시폭락으로 하반기에는 7%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책당국은 금리인하와 유동성공급과 같은 통화정책과 인프라투자와 같은 재정정책을 강화해왔다. 반면 위안화 국제화와 SDR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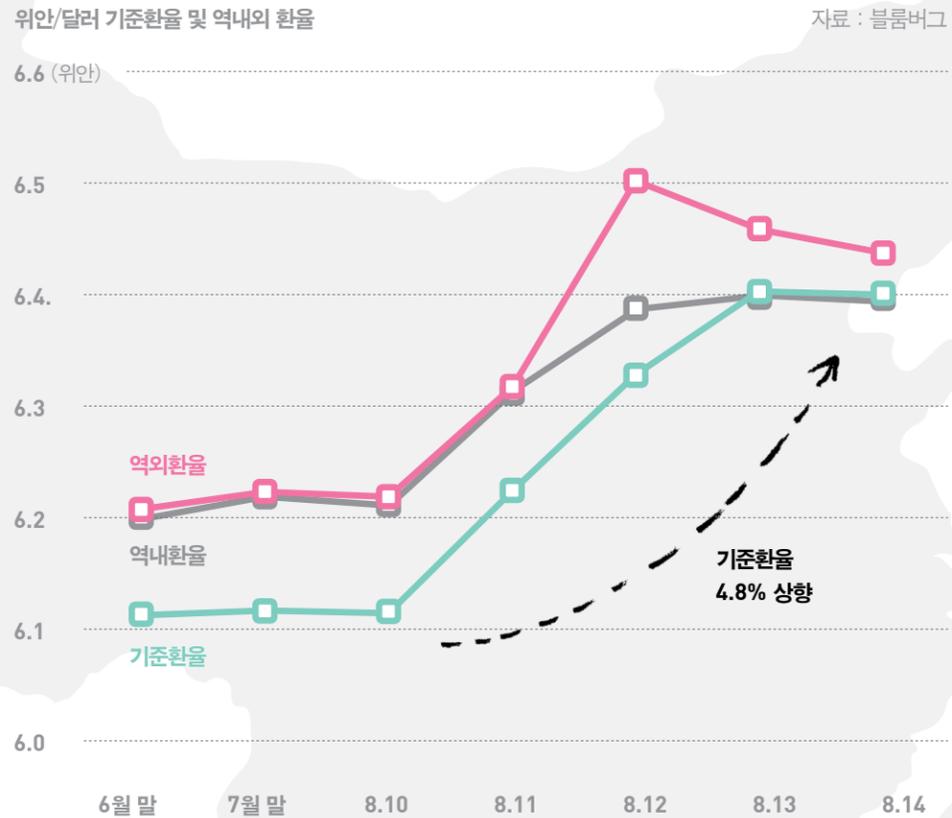
하지만 실질적으로 페그(고정)되어 있는 달러화 강세로 위안화도 동반강세를 보이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등 수출 및 제조업체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실제로 유로화와 엔화뿐 아니라 신흥국 통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의 고평가가 파르게 진행된 상황이다. BIS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위안화는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14% 절상되었다. 지난 5월 IMF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위안화가 더 이상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결국 중국 정책당국은 수출과 제조업의 지원이 없는 성장률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안화 절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다른 수출국들도 자국통화의 절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평가절하'가 아닌**  
**'환율변동성 확대'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 IMF나 미(美)재무부 관계자들은 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단순한 '환율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반응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결정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 봐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이 '평가절하'가 아닌 '환율변동성 확대'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라는 중국의 원대한 구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을 통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해 왔다. SDR은 기맹국이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SDR에 포함된 통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SDR은 달러·유로·엔·파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IMF는 중국 외환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내년 9월로 연기해버렸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고시(기준)환율과 현물환율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환율 변동성 확대를 통해서 IMF가 제시한 '자유로운 통용(Freely Usable)'요건을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를 절상압력이 아니라 절하압력이 있을 때 단행한 셈이다. 따라서 IMF나 미국 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중국의 결정에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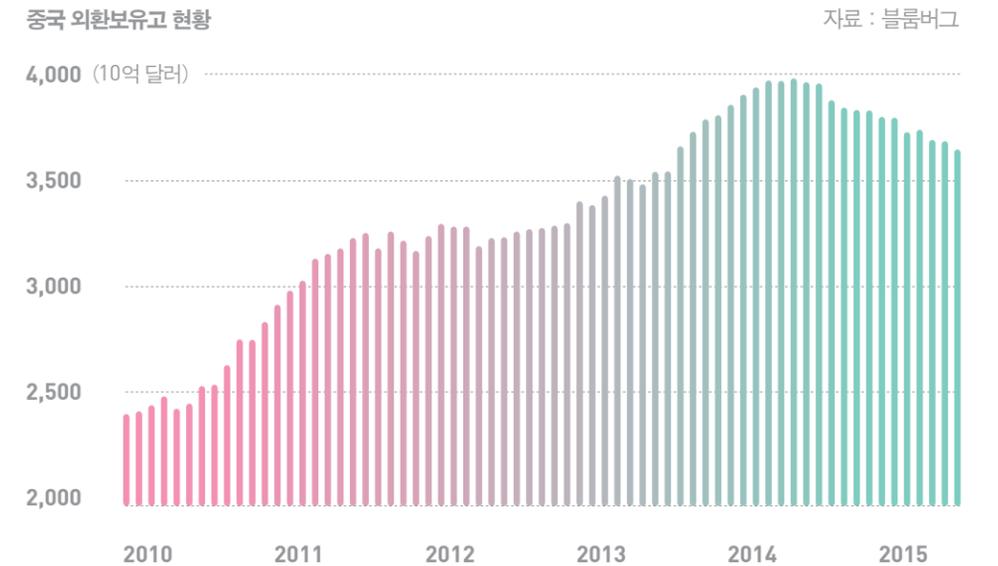
물론 IMF나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는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중국경제상황, 특히 내수가 개선된다면 세계경제에도 이롭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기축통화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를 통한 자국통화 약세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을 꾀했으며, 이들 국가들은 상대방의 환율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가**  
**불가피했던 상황**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중국이 사실상 위안화를 미 달러에 페그(고정)해 왔다는 것이다. 통화 페그제는 소위 말하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 : 다 얻을 수 없는 세 가지)'로 인해 환율의 안정과 자본이동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데 빠르게 9월중 미(美)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를 미 달러에 페그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연준의 통화정책(=금리인상)을 따라가야 하는데, 현재의 중국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중국 정책당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불태화 정책을 통해서 이와같은 트릴레마(Trilemma)를 피해왔지만 최근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고평가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등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타격이 우려되어 왔다.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위안화를 절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인민은행이 그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절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전망**

향후 계속될 연준의 금리인상 스케줄과 통화정책의 주도력을 유지하려는 중국 정책당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경기와 수출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위안화 절하폭과 기간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하가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美) 달러화는 연준의 출구전략으로 인해 이미 강세로 전환되었으며, 일본 엔화는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하락으로, 유로화는 디플레이션 우려 감소 등으로 약세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라는 중국 정책당국의 원대한 구상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절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인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정부 가계부채 대책, 주택시장에 찬물 끼었나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담보중심에서 차입자의 상환능력 중심 심사로 변화했다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의 증가와 대출한도 축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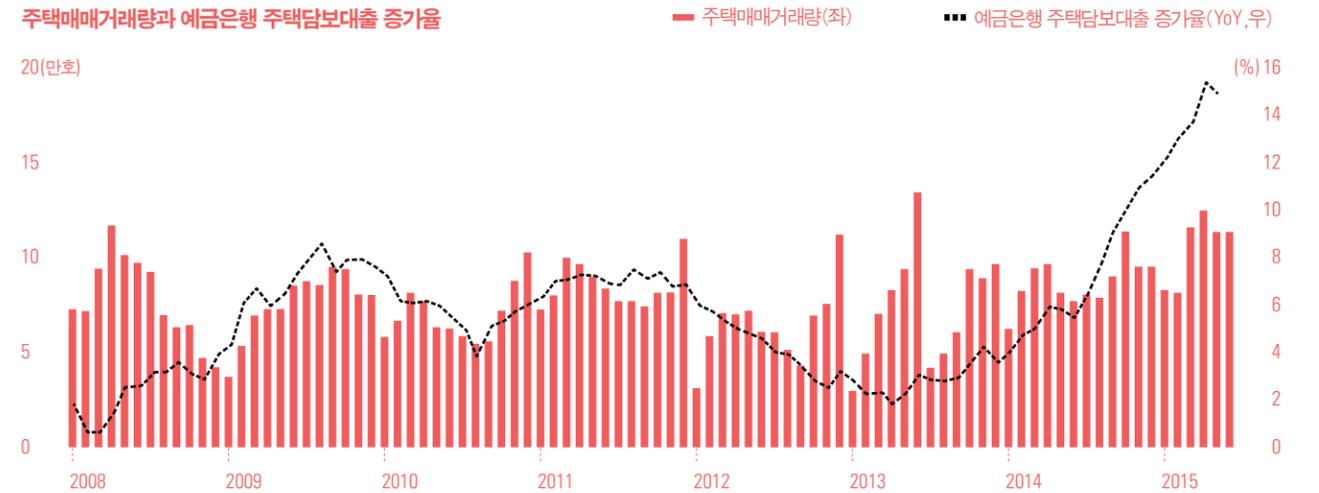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국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속에,

정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가계의 건전한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II 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가계 소득 증가에 비해 과도한 부채규모 증가는 민간소비를 제약해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나아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주택경기나 주택가격의 등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되는데, 과거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한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채급증에 따른 우려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매매거래량과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기존 담보 중심에서

차입자의 상환능력 중심 심사로 변화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변동금리·만기일시 상환 대출 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왔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목표치가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주

택담보대출 이용여건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차입자의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를 들 수 있다. 이제껏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대상주택의 소재지나 가격 등 담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에도 담보실행으로 은행의 채권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담보물에 의한 상환가능성을 토대로 대출의 가부를 판단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차입자의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소득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를 보다 강화할 뿐 아니라 고액대출 및 고(高)LTV 대출과 같이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질적인

상환부담 증가와 대출한도 축소 예상

이렇듯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적용이 확대되고, 차입자의 소득에 기반한 대출심사가 강화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이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차입자가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거치기간을 여유 있게 둬으로써, 비교적 원리금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책이 적용되면서 분할상환 개시시점이 취급이후 1년 이내로 앞당겨질 뿐 아니라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광범위하게 인정(예컨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신용카드 지출 등 간주소득 인정 등)했던 데 반해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득증빙자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출의존도 높은

최근 주택수요 특성상 주택시장 위축 우려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축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주택시장 호조세가 시중 저금리와 전세난에 따른 전세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수요 확대에 기반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택시장 위축의 우려는 더욱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에 지친 실수요층이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 미진한 30~40대 연령층이 임대인의 월세전환을 피해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주택금융과 주택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여 왔다. 결과적으로 정부 대책으로 인한 주택금융 이용여건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책이 적용되면서 분할상환 개시 시점이 취급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겨질 뿐 아니라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이 의무화될 전망  
”



# 어느 것을 먼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필요한 돈**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시 암 발생률 3명중 1명  
(통계청)  
뇌혈관질환 진료환자 50대 이후 8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부부 월 137만원  
개인 월 83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제4차보고서 2014년)

**돌려 받고, 보장 받고, 가족 선물 Plan이 가능한**

무배당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 Top3

**건강보험(보장성)**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리콘밸리의 '노화 방지 연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이 노화 방지 연구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노화 방지 연구'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페이스북, 오라클, 구글, 인텔 등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꿈꾸는 이들의 거침없는 투자에 실리콘밸리가 떠들썩하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은 120세까지 살 계획이다. 러시아 인터넷의 대부 드미트리 이츠코프는 1만 살까지 사는 게 목표.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오라클을 세운 래리 엘리슨은 '인간 필사'라는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공동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병의 완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법한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과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 페이스북, 노화 치료약 개발에 투자

페이스북의 피터 틸은 생명공학 연구재단 므두셀라(Methuselah : 성서에 나오는 최고령자로 969세까지 살았다고 한다)에 350만 달러(약 38억원)를 기부했다. 므두셀라 재단의 핵심 연구 프로젝트는 '노화방지 전략'이다. 노화방지전략은 노화와 관련된 7가지 손상 유형을 치유하는 약 개발이 목표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프로젝트 칼리코(Project Calico)도 주목할 만하다. 구글은 대형 제약사 애브비와 합작한 '죽음이라는 병의 완치(Cure Death)'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또 현대 노화방지 운동의 선구자인 글렌 의학연구재단은 1965년 벤처자본가 폴 F 글렌이 설립했다. 글렌 재단은 이미 2007년부터 노화와 관련된 유망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 개인에게 상금 6만 달러주는 '글렌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조직 내부의 노화방지 운동을 장려한다. 노화 관련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자선재단 미국 노화연구연맹에도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 인텔, 뇌와 같은 속도가진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

기술 대기업 인텔은 2018년까지 '엑사스케일(Exascale : 1초에 100경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간의 뇌와 같은 속도의 연산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말한다. 2013년 8월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과 독일 울리히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일본이 만든 K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1초 동안의 인간 뇌 활동 중 1%를 모방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엑사스케일'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K 슈퍼컴퓨터 실험에 참여한 마르쿠스 디스만은 지난해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 인터뷰에서 "K 슈퍼컴퓨터 같은 '페타스케일(Petascale : 1초에 1,000조 번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가 현재 인간 두뇌 네트워크의 1%를 대신할 수 있다면 '엑사스케일' 컴퓨터는 뇌세포와 시냅스 차원에서 인간 두뇌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컴퓨터가 나오리라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 수명 연장의 그림자

한편, 인간 수명이 늘어난 후의 부작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백 살이 된 사람이 무수히 많을 때 가장 걱정스런 문제는 지구가 과연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 명에서 2050년엔 약 9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인구의 일자리, 건강한 삶을 위한 식량, 식수 등이 문제다. 식량 등의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대응책 마련 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함정이 있다. 만약 우리가 영구히 살게 된다면 차세대 혁신적인 건강·기술 사업가들은 지금보다 더 힘든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인 수의 '인간 2.0'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도전! 아프리카 여행

**플레 플레(천천히 천천히), 아쿠나 마타타(괜찮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주하는 말. 여유와 마음의 풍요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다.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에 지친 현대인들은 가끔 꿈꾼다. 아무런 간섭이 없는 자유의 나라, 원시의 땅! 아프리카에서 타잔으로 살아보기를. 덩굴을 타고 밀림을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다. 아프리카 여행에 도전해 세렝게티 대초원에서 울려 퍼지는 동물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나약한 정신에 건강한 야수의 생기를 불어넣자.

최근 아프리카는 경제적인 이점과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여행객이 오버랜드 투어를 선호한다. 오버랜드 투어란 트럭으로 떠나는 여행.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자연을 눈에 담으며 사막의 황금빛 밤을 캠핑으로 지새우는 체험까지 만끽할 수 있다.

## 야수의 생기를 불어넣는 오버랜드 투어

### 오버랜드 여행이란?

아프리카 트럭킹이라고도 하며, 특수하게 제작된 고급 트럭을 타고 아프리카의 동남부를 탐험하는 여행을 의미

### 오버랜드 투어로 가능한 나라는?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마다카스카르,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 오버랜드 여행 시 주의할 점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편이므로 6월에서 10월 사이에 여행할 경우 오리털파카를 챙겨야 한다. 운동화도 필수. 낮에 표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화 없이 샌들만 신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건조한 날씨로 보습크림과 입술보호제도 꼭 가져가는 게 좋다.

숙박은 주로 캠핑 위주. 랜턴과 시계, 침낭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데 현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다. 이 밖에도 황열병 예방 접종을 해야 출국이 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